

기항 크루즈관광객 보안검색 면제 재추진

해수부 입법예고안 부처간 이견 속 ‘제자리걸음’
개정시 일본처럼 기항 승객 대상 보안 검색 생략
道 “정부 발의안 형태 불가능… 의원 입법 선회”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기항(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잠시 들르는 것)하는 크루즈 승객에 한해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항 목적의 크루즈 관광객을 상대로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국 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면서 “대신 국회의원 발의 형태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

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기항 목적 크루즈 관광객의 보안 검색을 면제해야 한다는 제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항만보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제주에 기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여권 대조를 통한 신분 확인과 함께 검색대에서 몸·짐 수색을 받는 등 보안 검색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출항할 수 있다. 입항할 때에는 보안 검색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본 등 경쟁국가는 기항 목적의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선 입항 뿐만 아니라 출

항 때에도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다. 크루즈 관광객은 이미 출발지에서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아 배에 탑승했고,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시행했다. 통상 크루즈 1척에 3000명 정도 탑승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국발 크루즈 시장이 재개하면 제주항에선 40여명, 강정항에서는 60여명의 보안 검색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만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인력의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비도 줄일 수 있어 한해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 예고까지 끝낸 항만보안법 개정안은 10개월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크루즈터미널도 공항처럼 국가주요 시설인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 발의안이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 상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해 국회의 원 발의 방식을 발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부와 함께 지난 10일 오영훈 국회의원을 찾아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다”면서 “오 의원 측은 조만간 제주로 현장 실사를 와 개정안 발의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지역언론 배제 네이버, 지역민에 사과를”

언론노조 지신노협 촉구

전국언론노동계와 경남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이 모바일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한 네이버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 경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버는 지역언론 배제를 철회하고 지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뉴스유통을 장악한 거대 포털의 행태에 지역이 일순간 사라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올해 4월 모바일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언론을 아예 뺐고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검색 노출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지역 언론사 콘텐츠 찾기가 이전보

다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에) 수차례 (지역언론을 배제한) 그 이유를 물었지만, 네이버가 내놓은 답변은 자체 임의조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게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는 뉴스 이용자 모두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네이버 등 포털은 근본을 무시하는 지역 언론 배제를 즉시 철회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털이 그간 얼마나 수익성에만 의존한 뉴스유통을 해왔는 지를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 배제, 지역 정보 일방 차단, 지역민 무시 등을 제멋대로 일삼는 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성민기자

제주학교비정규직 내달 3일 총파업 예고

노조 “임금차별 심각”
급식·돌봄 대란 우려

학교급식 종사자와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청소, 경비 등의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 등을 요구하며 7월 3일부터 3일 이상의 최장급·최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을 선포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5주간 쟁

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조합원 9만5117명 중 78.5%가 투표했으며, 89.4%가 파업을 찬성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1700여명의 공립 조합원들이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4.1%의 투표율과 96%의 파업 찬성률을 기록했다.

연대회의는 박인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 기준)은 1900만원대이고, 방학 중 근무자들도 243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표성준기자



잎이 하얗게... ‘알비노 푸지뽕나무’ 18일 제주시 한림읍 금림리 제주돌마울공원에서 한 탐방객이 알비노 현상을 나타낸 푸지뽕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알비노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결핍돼 하얗게 나오는 현상으로 식물에서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강희만기자

밤낮으로 ‘시끌’... 환경소음에 시달리는 제주

환경소음 기준치 40% 초과
도로변·야간에 소음 ‘심각’

제주도민이 환경소음 피해에 밤낮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5개 지점에서 환경소음을 조

사한 결과 환경기준치 4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 일도 2동 일대, 중앙로타리 등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지역은 같은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귀중앙초와 동흥동 일대,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 등을

대상으로 환경소음 측정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일반지역(초과율 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이 1~8dB(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이 2~7dB(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만 1~7dB(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dB(A) 넘어섰다.

연구원은 소음의 주된 원인을 자동차와 생활 소음으로 보고 있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예체능계열 대학진학설명회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0학년도 예체능계열 대학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학진학설명회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계열로 대학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입학전형 안내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6월은 호국보훈의 달

6.25 전쟁 제69주년 행사

참전용사들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지역

일시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장소 한라아트홀 (한라대학교 내)

내용 식전행사 10:30, 기념행사 11:00

서귀포시지역

일시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장소 88올림픽 국민생활관

내용 식전행사 10:00, 기념행사 11:00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대한국6 · 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